구하·경봉·월하·벽안 스님 행장 한 눈에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발간·봉정

국내 개별단위 사찰로는 최초로 근현대 불교사가 발간됐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12월 16일 설법전에서 월하 대종사 열반 7주기 추모 다례와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출판 봉정식을 봉행했다.

책은 근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으로 통도사에 주석했던 구하·경봉·월하·벽안 대종사의 행장을 중심으로 근현대 한국 불교에서 통도사가 지내온 길을 정리했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2007년 구하 스님이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오인돼 이를 소명하기 위한 사료작업을 진행하다보니 오늘의 통도사가 어느 한분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1차적으로 구하 스님과 함께 경봉·법안·월하 스님 등 근현대 통도사에 주석했던 네 분의 선지식을 조명·정리했다"고 말했다.

편찬 작업은 통도사 사적편찬실(실장 남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2008년 8월부터 2년 여에 걸친 작업 기간 동안 200자 원고지 1만 2000장 분량의 초고가 집필됐다. 사적편찬실은 이들 원고를 수차례 감수를 거쳐 전체 10장 상·하 각권 500쪽 분량으로 편찬했다. 각 장은 제1~3장(1900~1953년 구하·경봉 스님), 제4장(1953~1960년 경봉·월하 스님), 제5~6장(1960~1980년 월하·벽안 스님), 제7~10장(1980~2009년 월하 스님)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책에는 일본강점기 통도사에 주석했던 구하 스님이 조선소나무가 울창한 통도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일본 관리를 구슬러 다른 지역의 소나무를 대체 간벌했던 이야기, 만해 스님이 구하 스님의 도움으로 통도사에서 〈불교대전〉을 집필할 수 있었던 이야기 등이 수록됐다.

이 가운데 발간 전부터 종단 안팎의 관심을 끌었던 1998년 조계종 사태 당시의 조계종정이었던 월하 스님 행적에 대한 기술은 서론·결론과 2장의 사진으로 대체했다.

통도사 사적편찬실장 남현 스님은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교계 안팎의 의견을 수용해 후대 불교사학자 몫으로 남기고자 완성된 원고를 발간된 책자에서는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통도사는 책을 종단 구성원 및 불교단체와 불교학자를 비롯해 정치인, 대학·지자체 도서관 등에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 또, 〈근현대 불교사〉에 이어 〈통도사 사지〉와 〈사적지〉 등 편찬도 준비하고 있다.

정우 스님은 "통도사 관련 기록을 정리·편찬하는 것은 1400년 역사의 한국불교를 조명하는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통도사가 계승·발전시켜야 전통을 찾고 정체성을 밝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초우 스님이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를 불단에 봉정하고 있다.

다례재와 봉정식 후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를 주제로 출판기념 학술행사가 개최됐다.

행사에는 △한동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이 '근대불교계와 통도사 주지 구하 스님의 독립운동' △김광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경봉 스님의 수행 교화 불법수호의 원융사' △이경순 신구대학 외래교수가 '월하 스님의 종단 정화운동과 교단개혁활동' △박부영 불교신문 전략기획실장이 '벽안당 법인대종사의 종단관과 생애'를 주제발표했다.

특히 한동민 학예팀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오인됐던 구하 스님이 독립자금으로 비밀리에 지원했던 당시 돈 1만 3000원을 지출한 내역을 조목조목 밝혀 눈길을 끌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1998년 조계종사태 기록 빠져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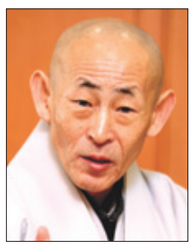
통도사 사적편찬실장 남 현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가운데 '제9장 개혁세력의 분열과 정화개력회의의 등장'은 (멸빈됐던) 제 입장에서 당연히 써서 알릴 부분입니다. 아직은 1998년 사건을 말할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에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양산 통도사 사적편찬실장 남현 스님(사진)은 12월 1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출판 봉정식 봉행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1998년 조계종 사태로 멸빈됐었다. 2006년 조계종 특별심사위원회를 통해 1998년 사태로 멸빈됐던 정우·현소 스님 등을 구제할 때 남현 스님도 승적을 되찾았다. 10년 여 만의 일이었다.

스님은 "아직 종단이 1998년 문제를 논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남현 스님은 "삭제된 제9장의 첨부 시기는 1998년 사태를 놓고 종단 구성원들이 끝장토론을 벌인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현대 불교사〉는 2년 여 동안 편찬됐다.

"2007년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우 스님이 '구하 스님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됐다'며 이의신청을 위한 자료를 찾아오라더군요. 이의신청 마감 20일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남현 스님은 수십 명을 동원해 국가기록관과 전국 대학 도서관 등을 뒤졌다. 20일 만에 만든 자료를 모아 〈구하대종사 민족불교운동 사료집〉을 출간했다. 이 책이 〈근현대 불교사〉를 펴내게 된 계기가 됐다.

"한국불교근현대사에 대한 연구 서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통도사라는 개별사찰의 역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현 스님은 "지난 역사를 기록하는 문화를 갖지 못한 지형적 한계로 편찬 작업은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회고했다.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도 부족했다. 흩어진 자료를 모으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력, 재정이 필요했다.

스님은 〈근현대 불교사〉의 모든 기록마다 각주를 달았다. 당시 신문기사를 우선 인용해 자료의 객관적을 높였다.

그러면서도 남현 스님은 "이 책에 기술된 내용은 모두 내 책임이다. 제방의 비판과 견책을 겸허히 수용해 개정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100자 뉴스

군종교구, 17사단 법당에 불교도서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교육사령부 자운사와 17사단 연주사에 불교도서관을 개관한다.

군종교구는 12월 26일 교육사령부 자운사와 12월 29일 17사단 연주사에 들어설 불교도서관은 백천불교문화재단(이사장 조명하)이 불서 200종 2000여 권을 보시하며 이뤄졌다.

군종교구는 "향후 군장병 포교와 인재불사의 일환으로 군법당 불교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열린가람 25주년 기념법회

포항지역의 복지법인 열린가람(대표이사 난승)이 12월 9일과 10일 이틀간 포스코 국제관과 포항시청 문화복지동에서 법인설립 25주년 기념식과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이병석 국회의원과 박승호 포항시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포항지역 복지법인 대표 300여 명이 참석해 법인의 25주년을 축하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동산불교大·동산반야회 동산인의 밤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과 동산반야회(이사장 안동일)이 12월 10일 대성 스카이렉스 빌딩 지하 엘마레따에서 '동산인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무진장 스님, 안동일 이사장, 한화갑 평화민주당 총재, 박문태 총학생회장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재가불교운동에 매진해온 동산인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2011년 행운의 동산인'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종로구민 '자비나눔'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12월 15일 종로구청장실에서 자비나눔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재단측이 전달한 쌀 400포와 400개의 산타선물박스는 종로 지역 소외이웃 400가정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기범 기자

실상사, 겨울재가학림

남원 실상사(주지 해강)은 12월 25~30일, 2011년 1월 1~6일 겨울재가학림을 개최한다. 실상사 화엄학림은 주제를 선정하여 대화와 토론을 절차탁마하는 논강위주의 전통 승가의 공부 방법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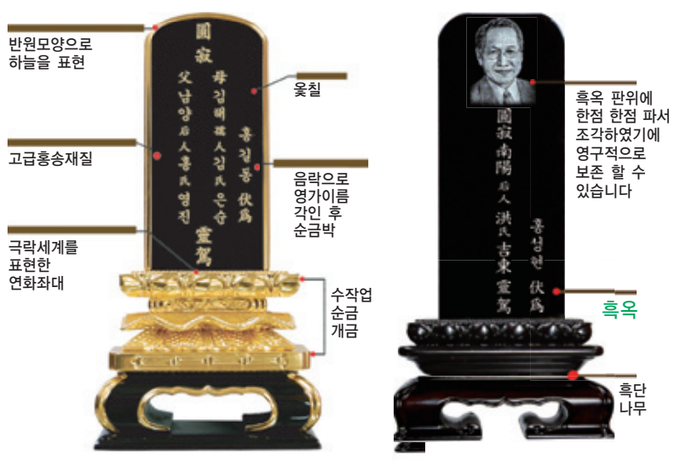
1차 학림 교수는 재연 스님과 도융 스님이, 2차 학림 교수는 재연 스님, 원묵 스님, 혜진 스님이 특강 및 차담에는 도법 스님과 해강 스님이 진행한다. 그밖에 생명평화 100배 서원 절 명상, 포행, 수행일기 쓰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정해진 수칙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참가비는 25만원이다. (063)636-3031

이상언 기자

황금영구위패는? ※ 디자인특허 ※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하여 제작한 황금위패로 영가위패단의 품격과 신도는 조상에 대한 승모의 뜻을 높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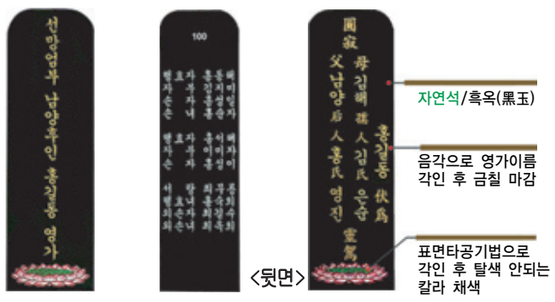
<안 치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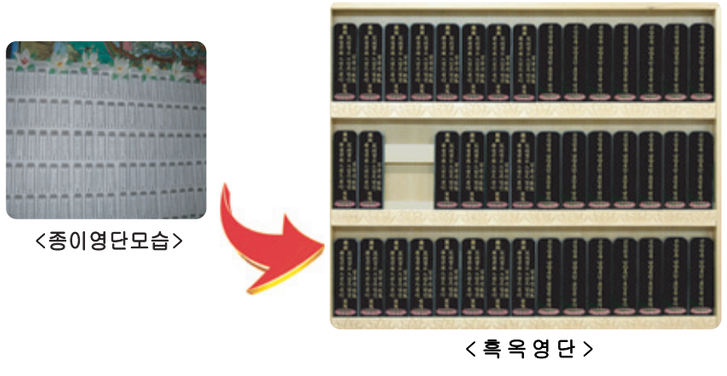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작업 조각

흑옥위패단은? ※디자인특허※

◈ 자연석 고급석재로 제작하여 영단의 안정감과 품격을 높여줍니다.
◈ 비용이 저렴하여 많은 신도가 위폐제작에 동참할 것입니다.
◈ 좁은 공간에 많은 봉안영구위패를 장엄 할 수 있는 맞춤형 흑옥위패 단입니다.
◈ 사찰비용없이 영단 설치와 어려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가의 문구는 각 사찰의 요구대로 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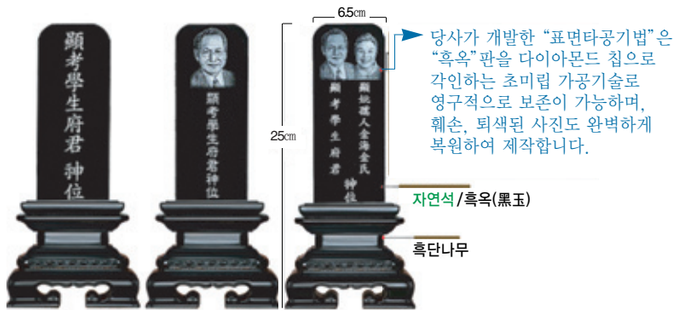


※ 전국 어디든 각 지역 사업부에서 샘플과 자료를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

흑옥 제사용 위패는? ※디자인특허※

◈ 제사 때나 명절에 지방위패에 조상님의 사진과 함께 제작한 지방으로 제사를 모시면 생전의 모습을 잊지 않을 것이며, 지방을 쓰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흑옥(黑玉)과 흑단 나무를 부착하여 제작하였기에 영구적으로 보존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시 사진은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제작 후 택배로 보내들입니다.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와 함께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966-9650
(주)대양아트 FAX : 02) 921-9650
본사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2 e-mail : dyart@daum.net